

사무소이전과
신사업개설

후지미노 국제교류센터가
이전했습니다.

다문화교류 살롱개설

현재, 사이타마현에는 147 개국, 123,000 명의 외국인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중 3/4 은 영주 또는 정주외국인으로 사이타마현 인구의 약 1.7%, 약 58 명당 1 명에 해당합니다.

토부토쥬선 연선에도 2 만명이 넘는 외국인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을 서포트하거나 자유롭게 모이거나 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후지미노국제교류센터 를 더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7 월에 가미후쿠오카역에서 도보 4 분 걸리는 곳으로 이전했습니다. 지금까지의 활동에 더하여 다문화교류 살롱을 시작 했습니다. 여러분! 꼭 놀러 오세요.

분위기 좋은 외국인과 일본인의 교류의 장인 「교류살롱」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 ①일이나 정보발신용 게시판을 설치합니다.
- ②외국인과 얘기한 적이 없는 일본인과 외국인이 처음으로 만나는 장소입니다.
- ③집안에 틀어박혀 있기 쉬운 외국인이 안심 하고 고충을 얘기할 수 장소입니다.
- ④커피 마시면서(한잔 100 엔) 모여서 마음껏 얘기할 수 있는 오아시스가 되길 바랍니다.

●일본어 교실은 그대로 목요일

일본에서 생활하려면 일본어를 쓰거나 읽거나 할 수 있으면 편리합니다. 일본어로 자기의 기분을 전할 수 있다면 고민의 대부분은 해결되겠죠. 외국인을 좋아하며 상냥한 선생님이 일본어를 무료로 가르쳐 줍니다.

●여러나라의 회화교실도 시작할 예정입니다.

영회화, 중국어, 한국어, 필리핀어, 각국의 요리, 수공예등 다양한 문화교류를 즐길 수 있는 장소가 되도록 사업을 확대해갈 계획입니다. 외국인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모집 합니다. 꼭 정보를 보내주세요.

●어린이들의 장소로 만듭니다.

- ①일본어나 학교공부를 할 수 있는 장소
- ②진로상담이나 고민을 상담할 수 있는 장소
- ③일본생활에 필요한 기초능력을 익혀서 일본에서 일하며 세금을 내는 어른이 되길 바랍니다.

●외국인생활상담소를 만듭니다.

애들과 함께 임신부도 가볍게 고민 거리를 상담하러 오세요.우리는 프로는 아니나 정확히, 성심성의껏, 진심어린 어드바이스를 합니다.각종증명서 번역료 는 A4 사이즈로 1,500 엔부터 입니다. 대필은 1,000 엔입니다.지금부터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일본에서의 생활방식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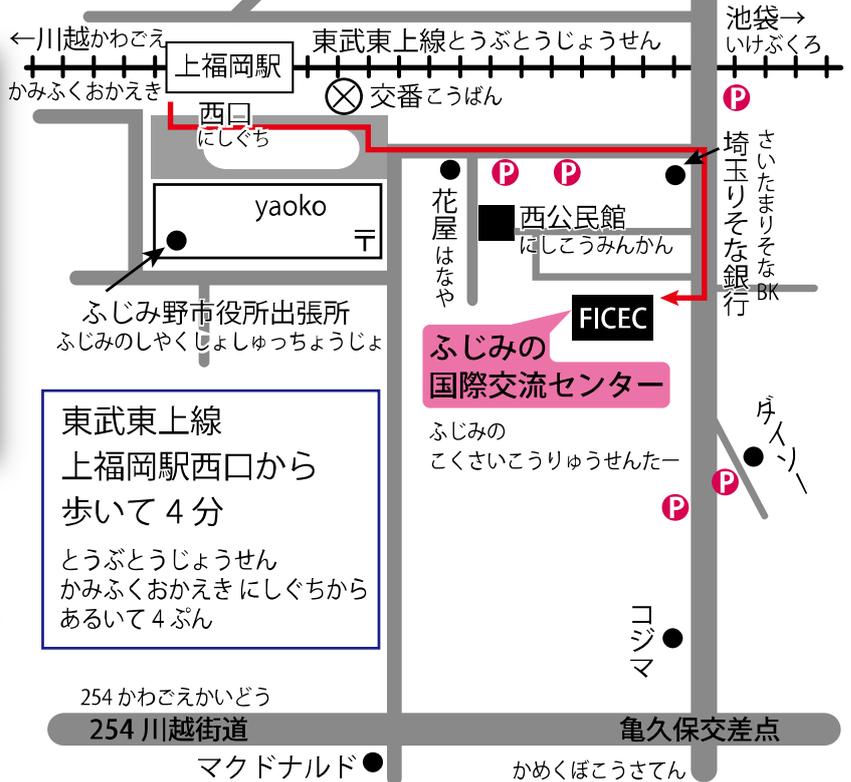
●원코인 음료코너를 설치

커피를 마시며 과자를 먹으면서 마음껏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코너입니다. 판매수익은 운영비가 됩니다. 친구들을 데리고 놀러오세요. 한 분이라도 좋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음료코너의 애칭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새주소/사이타마현 후지미시 카미후쿠오카 5-4-25
전화/049-256-4290 전화번호는 그대로입니다.

토부토조선
카미후쿠오카
니시구치에서 걸어서 4분

ちゅうしゃじょうはありません
ちかくのコインパーキングPをつかってください



東武東上線
上福岡駅西口から
歩いて4分
とうぶとうじょうせん
かみふくおかえきにしぐちから
あるいて4ぶん

대성황인 「당신이 있어서 감사파티」 감사합니다.

3가지 축하할 일이 겹친 25년도. 국제교류
활동으로 외무대신상 수상. 전국적으로도
드물다고 자부하는 7개국 국어로 생활정보지를
발행하여 200호가 되었다는 축하, 그리고
일본전국에 많은 NPO 중에서, 취득곤란한
세계상의 우대가 인정된 「인정」. 이 3가지를
축하하여 6월 15일 후지미시의 후쿠토피아에서
후지미시장을 비롯하여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외국인들이 만든 향토요리를
맛보고 화려한 퍼포먼스에 취해서 많은 귀중한
의견을 교환한 소중한 4시간이었습니다.

